



도심에 내려앉은 초미세먼지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대기가 뿌옇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주 후반 비가 온 뒤 점차 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시스

광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상인 울상

식재료·인건비↑... "고객 대신 내는 주차비 부담"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광주 지역 상인들이 새해부터 오는 공영주차장 요금에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 산하 22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린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시설 채투자자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바뀐 인상안(1급지 기준대로라면 1시간 주차 요금은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추가 요금 기준도 바뀐다. 기존엔 주차 30분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추가됐지만 앞으로 주차 10분 이후부터 10분 간격으로 요금이 붙는다.

상인들은 식재료·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고객 대신 주차장 요금을 부담하는 상인은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북구 문정초등학교 옆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강모(56·여)씨는 "식당 주인들이 손님 대신 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며 "한 달 주차 요금만 30만 원이 넘는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 시장 상인들은 약 60% 오른 주차비를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 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주차 요금 50%를 감면받는다. 이를 반영하면 월권 주차비는 4만 원에서 6만5000원으로, 상인들이 고객 대신 부담하는 30분 주차권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김영식 양동시장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이 비교적 넓고 쾌적한 대형마트로 옮겨가면서 발길이 뜸 끊겼다"며 "행정 절차 만을 고려해 요금을 60%나 인상하는 것은 전통 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원기 기자

광주 비엔날레 등 10대 문화체험 선보인다

시민 문화 향유 더 넓게...비엔날레 94일 역대최장

광주문화관 개관·한국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등

광주시가 시민이 문화생활을 더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10대 문화체험을 발굴해 선보인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새로 선보이는 10대 문화체험 변화는 ▲광주비엔날레 최장기간 개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본격 운영 ▲광주문화관 개관 ▲시립자도서관 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재단장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P 스튜디오 운영 ▲K리그 승격 다시 뛰는 광주FC ▲지역서점 인증제 ▲소외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광주비엔날레

는 오는 4월 6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7월 9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94일 동안 열린다. 국제 규모의 미술전시회를 보다 많은 이들이 관람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가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오는 8월 정식 개교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오는 4월 강의실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한다. 다만 8월 개원 전까지는 광주예술고등학교 강의실을 이용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도서관인 시

립점자도서관을 3월께 개관한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문화인들의 숙원인 광주문화관은 기획 18년 만에 문을 연다. 올해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광주문화관은 광주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공연예술의 중추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새단장을 마치고 5월께 재개관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하고 대규모 공연을 위해 디지털 방식의 최신형 무대기계와 고품질 장비를 확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기지가 될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도 본격

운영한다. GCC는 지난해 11월 남구 송암산단 일원에 문을 열었다. GCC의 대표 공간인 실감현영스튜디오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사카메라 촬영과 비추얼카메라 렌더링(3차원 영상을 만드는 과정) 융합으로 확장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상제작(VP) 공간이다.

2023시즌 K리그 1부로 승격한 광주FC의 화려한 날갯짓도 기대된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프로축구 구단 광주FC는 지난해 역대 최다승(25승 11무 4패)을 일구며, K리그 1부 승격을 확정지었다. 광주시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의 화장실·매점 등 편의시설을 확충, 축구팬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임지가 줄어들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조일상 기자

남부 가뭄 3월까지 '봄철 영농기 대비상'

최근 6개월 남부 강수량 평년 69~86%

광주·전남 등 남부 지역의 최악 가뭄이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정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전방위적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795.1mm)은 평년의 93.1%이나,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약 69~86%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3월까지의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대체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1월(평년 17.4~26.8mm)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2월(평년 27.5~44.9mm)과 3월(평년 42.7~58.5mm)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

은 평년의 96.7%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북과 전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이다.

정부는 마늘·양파 등 노지 밭작물의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하고 월동기로 밭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용수부족 지역 점검을 통해 용수공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농기까지 가뭄 지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는 하천수를 활용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전남지역 대규모 저수지(담양·장성·나주·광주호)에는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해 용수를 비축해 나가고 있다. /김도기 기자

수돗물 절감 저수조 청소 유예	2면
고 배음심 여사 1주기 추모	3면
임대 사업자 주택 54% 강릉	4면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